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4주일(성모성월)
제29권 23호(나해) 2009 · 5 · 3

[묵상]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요한 10,14)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바람 걸 따라 들려오는 주님 말씀 들었네.
나를 따르라.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렸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했다.
양들의 목소리를 알고 하나씩 살피시는 주님,
양떼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착한 목자 예수님,
다른 양들도 데려와 같은 양 우리에게 두시려는 주님,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뜻을 좇아
자신을 봉헌하여 삶과 전부를 내어놓고
오직 양떼와 주님을 위해 사랑을 불사르는
그런 자신으로 바꾸어야 했던 것이다.
오늘 46번째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사제직과 봉헌생활의 성소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품에 가득 안아본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파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한숙이 모니카, 김소천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김서분 마리아 (생)이인숙 베로니카,오현희 골롬바와 진희아네스,김지훈, 송주영, 이화영, 신동훈, 최태훈, 유은상,신도니, 강호우, 성낙호 요셉과 은혜 실비아, 김풍길 바오로와 모니카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 김수환 추기경,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이금순 마리아, 김인영 베드로, 김소천 마리아,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이영자 마리아, 이상현베드로, 정요임안나, 최복덕 마리아, 황옥분, 김형수, 김순니, 박순자 테레사와 이중무 바오로, 김종렬 아가비도 (생)조형래 어거스틴과 유미 가정, 최석원 클레멘스, 김은영 켈마, 이근모 마리오,정기은 비오, 오세원 아타 나시오와 루시아 가정, 이중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김용 스테파노와 문주 엘리사벳, 박유순 빅토리아, 이종민요셉, 조옥중 사제, 박상대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4,8-12
화 답 송	◎집 짓는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되었나이다. <전례성가 72, 부활제4주일 나해>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주님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주님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수령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제 말씀 들으시고 구원을 주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오리다. 집 짓는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이루신 일이옵기에 우리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전당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내 하느님 감사하나이다. 내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제 2독서	요한 1서(1 John) 3,1-2
복 음	◎알렐루야.
환 호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 음	요한(John) 10,11-18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4	162
봉헌	264	243,269
성체	423	306,308
파견	165	327

27.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과,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 ?”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31-40)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신의 부활

위의 복음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것이며, 그 때에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라 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세상과 인간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됨을 의미한다. 그 때에는 죽은 모든 이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1코린 15,13-14 참조)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간 부활의 원형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실 때의 육신을 지니시고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영광스러운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요한 20,19-20)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1고린 15,52-53)

▶ 공심판(公審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산 이와 죽은 이를 포함한 온 인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공심판’(公審判)이라 한다.

☞“죽은 이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요한 5,28-29)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특수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지만, 그것은 다만 씨앗일 뿐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하느님을 “얼굴을 맞대고”(1코린 13,12) 보는 것이며, 하느님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아무도 가져가지 못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지복직관’(至福直觀)이라 한다.

(◆CBCK 제공 - 계속)

양들을 위해 목숨 바치는 착한 목자

“나는 허락할 수 없다.” 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장남이 신학생인데 둘째 아들마저 신학교를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셨다. 아버지의 굳은 표정에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안방에서 나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따라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행여 아버지가 들으실까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네가 잘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하려무나...” 결국엔 어머니의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행로를 정할 수 있었다. 그날 밤 하느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제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겠다는 너를 말린 것이었다. 그러니 오해는 말아라.” 그제야 나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부족한 내가 지금까지 사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모두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은인들 덕분이다. 특히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소개하신다. 착한 목자는 자신의 품삯만을 위해 일하는 삯꾼들과는 다르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성소란 무엇인가? 성소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룩한 부르심을 말한다. 사제, 수도자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도 있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삶도 성소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특별히 사제와 수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소주일이다. 우리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님께 수확할 일꾼을 보내 주십시오 청해야 한다.(마태 9,37-38 참조) 그러나 단순히 성소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2코린 2,15)를 지닌 사제와 수도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일생을 오로지 하느님 나라를 위해 바친 사람이다. 그래서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이에게 모든 것”(1코린 9,22)이 되기 위해 ‘착한 목자’처럼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목숨을 바칠 각오로 앞장서야 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사제는 바로 착한 목자이다. 그러나 사제도 나약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안고 있다. 그래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신자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교회는 오늘날도 하느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더욱더 내어놓을 젊은이들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성소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교회 전체가 성소 계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성소 계발은 단순히 교회의 몫만이 아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자녀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당에서는 매년 한 명 이상의 젊은이를 성소자로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면 어떨까? 물론 신부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는 절대적이다. 신부님들이 성소자 계발에 관심이 있는 만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레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김금자 테레사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민승기 로사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5 월
성모성월

◆ 병자영성체 : 7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성 시간 : 7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토런스 북구역

- ◆ M.E. 기금모금 음식판매와 첫주말 수료자 환영식
백삼위 M.E.발전을 위해 연례행사로 갖는 음식판매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일시 : 5월2일(토) 특전미사 후, 3일(주일) 아침/학생/낮 미사 후 친교장.
- 메뉴 : 각종 밑반찬(홈메이드), 빈대떡, 파전, 족발&막걸리, 갈비정식(낮미사 점심에 한함)
- 남가주M.E. 제63차 첫주말 수료자 환영파티 : 오늘 주일(3일) 오후 6시 강당. 선배 부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이명렬 라파엘 & 명순 크리스티나
- ♡윤화경 바오로 & 경옥 실비아 ♡이호미 엘리사벳 & 홍광선
- ◆ 백삼위 대학부 '파첸(PACEM)'창단
본당 대학생 신자들로 구성된 'PACEM'(평화)이 그동안 준비 과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 그룹은 주일학교와 매론청년회 사이의 세대들로서, 앞으로 대학진학 후배들을 돕고 본당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젊은 신심단체로 활동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관심과 함께 대학생들의 멤버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 가입 문의 : 회장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홍보담당 배운우 이나시오 ☎(310)528-5240
e-mail : univ103@gmail.com
- 창단 파티(Pacem Get Together Beach BBQ Party) :
오늘 주일(3일) 오후 1시30분~7시, 샌피드로 카브리요 비치. 성당주차장에서 출발. 준비물: 편한옷, 수영복, 수건등.
- ◆ 제16차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 5월17일(주일), 낮미사(오전 10시) 후 운동장
- 진행: 대건회

- 구역별 팀구성 : 청팀-토런스 동, 서, 북구역
백팀- 토런스 남, 하버/카슨, P.V.구역
- 식사 : 각 구역별로 준비
- 종목 : 피구, 오제미던지기, 물풍선나르기, 축구(어린이/어른) 릴레이, 짝짓기, 줄다리기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 자리에 많은 신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도네이션 문의 ☎(310)569-0482 오세원 사목회장
- * 이날 오전 7시30분 미사는 있습니다.
- ◆ Virtus Facilitator 교육(한국어)
- 일시 : 5월23일(토)/24일(주일) 오후 3시~오후 8시
- 교육대상 : 본당 신부님, 수녀님, 회장단, 총무 분과장, 청소년 분과장, 주일 학교 교장, 한국학교 교장, 자모회장, 청년 회장, 대학부 대표, 주일학교 학생 대표, 사무장
- 10시간 강의로 이틀간 모두 참석해야 함
- 장소 : LA 아그네스 성당
- 문의 : 청소년 분과장 강인모 테오도시오 ☎(415)730-4585
- ◆ 최영신 프란치스코 형제의 종신부제 서품을 축하합니다.
- 서품식 : 6월13일(토) 오전 9시
- 주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장소 : LA 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CA 90505)
- ☞ 초대권과 주차료가 필요합니다. 참석하실 분은 5월15일 까지 신청해주시시오. 최숙 클라라 ☎(310)637-9000
- 수품기념 감사미사 : 6월14일(주일) 오전 11시, 본당
- ◆ 제18차 남가주 한인 선택주말 참가자 모집
- 일정 : 6월25일(금)~28일(주일)
- 대상 : 22세~35세 미혼 남녀 * 참가비 : \$200
- 지도 : 김두진 바오로 신부(예수고난회)
- 장소 : Mater Dolorosa Retreat Ceter
- 신청서 : 본당 사무실 / lachoiceweekend@gmail.com
- 문의 : 총대표 김현철 아우구스티노 ☎(310)987-8008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3일(주일) : M.E. 기금모금 음식판매
- 5월10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권오상	김광자	김성현	김영정
	김완태	김우용	김 욱	김 은	김태호	김택수
	김현숙	문영일	박선행	박인식	박재철	박종열
	배경락	서영주	양영관	엄세종	유근태	윤화경
	이관웅	이귀분	이병우	이은록	익 명	정연영
	정해홍	천광락	최원석	최재은	최진수	한상현
	합계 : \$4,500					
미사헌금 : \$3,296						
사순애금 : \$60						

성전헌금	권오상	김광자	김성현	김우용	김 욱	김택수
	김현숙	문영일	박선행	박인식	박재철	박종열
	배경락	서영주	엄세종	윤화경	이관웅	이병우
	이은록	이일길	익 명	정해홍	천광락	최원석
	최재은	최진수	한상현			
	합계 : \$2,670					

공지사항

◆ 학생 견진성사

- 대상 : 10~12학년
- 리허설 : 5월8일(금) 오후 7시30분~9시
Reflection : 5월 14일(목) 오후 7시
(견진대상자와 대부모는 3일간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 견진성사 일시 : 5월15일(금) 오후 7시
- 주례 : Sartoris 주교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

◆ 한국학교 서예 강습과 색종이 접기

- 일시 : 5월10일(주일) 낮12시~오후 3시
- 장소 : 강당(이날은 2층교실수업 대신 전체 학생이 강당에 모여 전문 강사로부터 강습을 받음)
- 교육내용 : 붓글씨로 가훈쓰기, 색종이 접기

◆ 주일학교/한국학교 휴강 안내

- 일시 : 5월17일 본당 체육대회날(학생미사 없음)
5월24일 메모리얼데이 연휴(학생미사 있음)

◆ Youth Conference(고등부 신앙대회)

- 일시 : 7월24일(금)~26일(주일)
- 장소 : Steubenvill,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150
- 신청마감 : 5월31일(주일), 35명 선착순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남가주 소식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일시 : 5월30일(토) 오후 5시~10시
- 대상 : 남가주 전 신자
- 강사 : 배광하 치리아꼬 신부(춘천 겹사마니 피정의 집 원장)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 내용 : 찬미/미사/특강/안수
- 문의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총무 ☎(213)435-7570

◆ 에콰도르 의료 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6일(월)~7월14일(화)
- 장소 : 에콰도르 과야킬 교구 팔마 본당과 공소
- 모집대상 : 의료진과 대학생, 일반 봉사자 *참가비 \$1500
- 지도 : 이영찬 신부
- 주관 : 해외 빈민구제회/가톨릭 의료봉사회
- 문의 : 정동현 마르첼리노 ☎(213)820-3162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노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3	한길선레 스폴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폴라스티카 782-1025 5/15(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5/17(주일) 본당 체육대회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안혜진 세레나 325-6982 5/13(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켄마 214-2290	강은진 켄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5/17(주일)본당 체육대회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5/8(금) 오후 7시30분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송근섭 발렌티노 (213)268-8455 5/9(토)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오석만 사뮈엘 5/8(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이문종 바오로 541-7860 4/17(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네스 5/14(목) 오전 10시

제 46차 성도주일 교황 담화문 (요약)

◎ 하느님의 주도권에 대한 신앙과 인간의 응답 ◎

사제직과 봉헌 생활에 대한 성소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서, 하느님께서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속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성화 소명에서 특기할 것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분에게서 특권을 받은 봉사자요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사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굳게 확신하며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첫째 임무는 가정과 본당, 교회의 모든 영역을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입니다.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서 일부사람들이 구원사명을 위해 그들의 삶 전체를 기꺼이 당신께 바치고 당신과 협력하기를 끊임없이 요청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느님의 주도적 부르심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 요구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062항 참조) 사제들은 성찬례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자유로운 주도적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충실한 응답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소의 대화’에 대한 탁월한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과 특히 사제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미사 때마다 그 사랑으로 자양분을 얻는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자기를 버리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인간의 자유가 신비롭게 만나, 영혼을 올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봉헌 생활에 대한 성소에도 존재합니다.

누가 감히 자신이 사제 직무에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자신의 인간적 능력만 믿고 봉헌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자유로이 응답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지는 ‘공동 책임’이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과 이루는 친교입니다.(요한 15,5 참조)

하느님의 주도적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신뢰 가득한 전형적인 대답은 동정 마리아께서 아낌없이 바치는 완전한 “아멘”입니다. 마리아께서는 특히 사제들과 봉헌된 사람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직무 사제직과 봉헌 생활의 길로 들어서는 모든 이들을 그분께 맡겨 드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의혹 앞에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충실히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동정 마리아를 본받아 영적 활력을 모두 쏟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일에 투신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흠숭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교황 베네딕토 16세

◎ 성소를 위한 기도 ◎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에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착한 목자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